미국 도시농업 현황과 시사점 *

이 창 우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미국 도시농업의 개관

2013년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제34회 미국공동체텃밭경작협회(American Community Gardening Association, ACGA) 컨퍼런스가 시애틀에서 개최되었다. 미국, 캐나다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도시농업, 공동체운동, 도시공원 분야 등에서 수백 명의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참여하였다. 컨퍼런스는 기조강연, 워크숍, 영화제, 현장방문 등으로 구성되었다.

미국공동체텃밭경작협회(ACGA)는 북미를 대표하는 도시농업단체로서 도시농업과 도시녹화를 통해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전문가, 자원봉사자, 풀뿌리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캐나다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ACGA 제34회 회의 주제는 "공동체와 건강"이었으며, 식품사막(Food Desert), 식맹(Food Literacy) 등의 주제도 다루어졌다. 미국 도시농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공동체 정신을 기반으로 식량체계라는 큰 틀에서 접근
- 마을공동체, 복지, 건강이 핵심 가치 형성
- 채소 경작, 화훼 재배, 양계, 양봉에 통합적으로 접근

* (lcwsdi@si.re.kr).

-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활동과 파트너십 강조
- 푸드뱅크와 연계한 기부 텃밭조성과 자원봉사 제도화

2014년 8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 간 시카고에서 개최된 제35회 ACGA 컨퍼런스에서는 북미지역에서 오랫동안 재배되었으나 지금은 보기 힘든 전통 과수를 재배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세션이 운영되었다. 동 세션에서 다양한 종류의 나무딸기와 재래종 사과 종류, 개암과 같은 견과류 종류들을 도시 내에서 재배하는 방법이 소개되었다. 도시농업을 통한 전통 과수의 보전 운동은 채소 위주로 진행되는 국내 도시농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컨퍼런스 뿐만 아니라 각종 간행물을 통해서도 최근 미국의 도시농업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수년간 미국에서 농민시장, 공동체지원농업, 공동체텃밭을 비롯해 도시농업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서적이 발간되었다. 미국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백악관 부지에서 텃밭을 가꾼 경험을 담은 책(American Grown)이 2012년 발간되기도 하였다. 최근 미국에서 발간되는 도시농업 관련 서적을 살펴보면 식량과 도시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도시농업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형태와 기능이 매우 다양하다. 생태적 녹지나 서식지를 새로 만들기 위한 텃밭, 꽃을 키우거나 교육 목적으로 한 텃밭, 정원이 없는 집에서 정원 가꾸기 기회를 얻기 위한 텃밭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어떤 공동체텃밭은 개인별 관리구획 없이 공동체가 집단으로 관리하는 도시농장 형태를 취하고 있기도 한다.

미국의 공동체텃밭은 여러 회원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공동체텃밭은 일반적으로 여러 구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구획의 크기는 작게는 “3m × 3m”에서 크게는 “6m × 6m”이다. 공동체텃밭의 관리주체는 협동조합에서부터 공공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경작자들은 매년 사용료를 내고 정해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의 도시농업은 우리나라와 달리 텃밭에서 채소를 경작하는 행위보다 공동체 활동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공동체텃밭에 기부텃밭 마련이나 1년에 8시간의 자원봉사 의무화가 좋은 예이다.

미국의 공동체텃밭은 농민시장, 공동체지원농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동체텃밭의 수확물은 판매하지 않으나 목적에 따라 판매를 허용 또는 기부하는 경

우도 있다.

본고에서는 지난 수년간 미국의 도시농업 현장을 직접 둘러본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도시농업의 현황과 주요 도시의 사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도시농업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미국 도시농업의 현황

2.1. 2012 미국 도시농업 실태조사

미국의 도시농업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자료로는 2013년 ACGA가 발표한 2012 공동체텃밭 단체 실태조사가 있다. 2011년에서 2012년에 걸쳐 ACGA와 러트거스 대학(Rutgers University)이 공동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도시농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ACGA는 미국과 캐나다의 공동체텃밭 단체를 대표하는 연합회로서 1979년에 설립되었다. ACGA는 1992년, 1998년에 이어 2012년에 세 번째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2012년 조사의 응답자는 445개 단체였다. 모집단은 미국 50개주와 워싱턴 DC, 버진아일랜드, 캐나다 8개 주를 포함하여 8,550개 공동체텃밭이다.

동 조사의 조사대상은 개별 텃밭이 아닌 지역별 공동체텃밭 단체이다. 응답자 중 1개 텃밭만 관리하는 소규모단체가 117개, 2~3개 텃밭을 관리하는 중규모단체가 63개, 4~30개 텃밭을 관리하는 대규모단체가 113개, 31개 이상의 텃밭을 관리하는 거대규모단체가 41개였다. 인구가 밀집된 곳에 있는 단체의 회신 율이 높아 조사의 응답자 분포는 대체로 미국의 인구분포와 비례하고 있다.

ACGA는 공동체텃밭을 “공동체 회원이 식용 또는 관상용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라고 정의한다. 미국의 공동체텃밭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활동 양상을 띠고 있는데 최근에는 학교 텃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응답단체 중 51%가 대기자 명단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2007~2011년까지 5년간에 걸쳐 2,660개 공동체텃밭이 새롭게 조성되었다. 1개 텃밭만 관리하는 소규모 텃밭단체 117개 중 62.3%에 해당하는 73개 단체가 2007~2011년에 새로 텃밭을 조성했다고 응답한 결과에 비추어 2000년대 들어 미국에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미의 공동체텃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43.76%를 차지한 마을 텃밭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교회텃밭이 2위로 20.32%를 차지하고 있다. 3위는 공공주택 텃밭이 차지하였다<표 1 참조>. 그러나 <표 1>의 분류

방식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지역별로 독자적인 분류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디트로이트 시에서는 도시텃밭을 가족텃밭, 공동체텃밭, 학교 텃밭, 시장텃밭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1 북미의 공동체텃밭 유형 분포 현황

단위: %

구 분	공동체텃밭 유형 비율
마을 텃밭	43.76
학교 텃밭	3.04
공공주택 텃밭	9.65
교회 텃밭	20.32
복합용도 텃밭	7.29
구획이 있는 대규모 농장	2.30
노인센터노인주택 텃밭	3.36
직업훈련청년고용 텃밭	1.49
치유텃밭	5.96
기타	2.84
합계	100

자료: Lawson and Drake(2013).

북미 도시농업단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힘든 과제를 물은 질문에 전체 445개 단체 중 325개 단체가 회신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정 문제, 회원 관리, 경작지 확보, 농기구나 물 등 자원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특히 경작에 필요한 자원의 경우, 많은 미국 도시농부들이 농기구, 흙, 종자, 물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2 공동체텃밭 단체가 직면한 과제

단위: %

단체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과제	응답 비율
재정	61
인력관리: 새로운 회원을 참여시키고 계속 활동하게 하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	58
토지: 새로운 경작지에 접근하고 장기적으로 경작지를 확보하는 일	23
텃밭 경작에 필요한 농기구, 물 등 각종 자원	22

자료: Lawson and Drake(2013).

2.2. 도시농업을 통한 종자보전 및 공유

미국의 종자 관리는 특허와 연계되어 있으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현재 일반 작물의 종자들은 다국적 기업에서 공급받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다양한 재래종 작물과 화훼종자들이 도시농업 차원에서 시민참여로 널리 재배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배경으로 주요 식물원들이 운영하는 씨앗도서관 운동을 들 수 있다. 씨앗도서관은 시민들에게 특정 씨앗을 빌려주고 수확기에 그 씨앗을 다시 돌려받는 기관이다. 그러나 식물은 재배하기도 쉽지 않지만 종자를 채종하여 다시 도서관에 반환하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반환비율은 10% 미만에 불과하다. 따라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의 문제, 중요한 종자 관리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시민에게 대여해 주는 씨앗은 구하기 용이하며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씨앗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씨앗도서관에서는 좋은 품질의 씨앗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식물을 키우고 씨앗을 채종하여 정선하고 보관하는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기도 한다.

씨앗도서관과는 별도로 시민들끼리 직접 씨앗을 교환하여 재배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보유하고 있는 씨앗 목록을 공유하고 서로 씨앗을 교환한 후 재배하는 방법이다. 다만 이 방법의 경우 씨앗의 품질과 정확한 식물명칭 등의 문제, 잡종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 미흡 등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런 활동들은 다양한 종류의 씨앗을 비교적 손쉽게 구하여 재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시농업은 산업측면의 농업과는 달리 소량다품종을 재배할 수 있고, 생산성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씨앗을 교환하여 재배하거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재래종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시농업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씨앗 교환은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중요한 활동이다. 미국 도시농업단체들은 사라진 여러 작물들을 도시지역에서 보전할 수 있으므로 생물다양성 보전 측면에서 도시농업을 중시하고 있다.

2.3. 식물원과 도시농업

미국에서는 식물원에서 다양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브루클린식물원, 뉴욕식물원, 시카고식물원이 모두 도시농업과 도시녹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각각의 도시의 여건과 식물원의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식물원이 도시농업기술과 재료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식물원 내 공동체텃밭과 어린이텃밭 운영 등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

2.3.1. 뉴욕식물원

뉴욕식물원은 가족텃밭을 운영하고 있다. 회원제로 운영하며, 식용작물재배를 위한 텃밭 아카데미(Edible Garden Academy)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뉴욕식물원 안에는 어린이텃밭도 있다. 텃밭에서 모험적인 활동과 교육활동 및 야외활동을 할 수 있다. 뉴욕식물원은 브롱스 지역의 도시녹화 및 원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과 컨설팅, 퇴비화 지원, 재료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연 1회 경진대회를 주관하고 있다. 각종 지역사회 지원은 뉴욕식물원의 사회적 책임사업으로 이해되고 있다.

2.3.2. 브루클린 식물원

뉴욕시 브루클린식물원에는 100년 이상 된 어린이텃밭이 있어 매년 4,800여명의 어린이에게 텃밭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브루클린식물원에서는 최고의 녹색 블록(Greenest Block) 경연대회를 주최하고 있다. 4개 분야에 매년 12개의 커뮤니티를 시상한다. 2014년에는 참여그룹이 200개 팀에 이르렀다. 브루클린식물원은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사회 원예 및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3.3. 시카고식물원

시카고식물원은 여러 형태로 도시농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도시농업 교육훈련 전문기관(Windy-City Harvest)을 설립하여 6개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시카고식물원에는 어린이텃밭이 있다. 시카고의 어린이텃밭(Grunsfeld Children's Growing Garden)은 어린이텃밭의 모델이라 할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 시카고 식물원에는 먹거리 정원이 있으며 요리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과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도 손쉽게 식물을 접하고 경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치료정원도 운영하고 있다.

2.4. 캔자스 주의 공동체텃밭 보조금 프로그램

미국 내 다른 주의 도시농업이 활발한 데 비하여 미국 중부에 있는 캔자스 주는 최근에 들어서야 도시농업이 발전하고 있다. 지역 내 많은 단체들이 공동체텃밭 조성에 관심이 있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2011년 캔자스 주에서 건강증진 활동을 펼쳤던 자선단체인 캔자스 건강재단(Kansas Health Foundation)은 모든

캔자스 주 주민이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접근하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공동체텃밭 조성사업에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나섰다.

캔자스 공동체텃밭 보조금프로그램[1]은 캔자스 건강재단과 캔자스 농업기술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캔자스 농업기술센터는 주 내 105개 군마다 있는 기관으로 본 보조금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경작자에게 각종 기술을 지도한다.

각 공동체텃밭은 텃밭조성 자금으로 최대 5,000달러까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교외지역이나 농촌지역의 읍 단위에서도 신청되었다. 본 보조금 사업은 주로 얼로트먼트(allotment) 텃밭과 공동텃밭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3개년 사업기간 중 첫 두 해 동안 59개 공동체텃밭이 총 25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그 결과 1,170개의 새로운 얼로트먼트 구획이 조성되었고 4만 2,000㎡의 토지가 공동텃밭 용도로 조성되면서 최종 8만 ㎡의 공동체텃밭이 새롭게 조성되었다. 본 보조금 사업을 통해 3,500명의 도시경작자들은 공동체텃밭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3개년 사업의 마지막 해인 2014년에는 15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도시민들에게 도시농업에 대한 많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프로그램에서는 이틀 간 도시농업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참가자들은 공동체텃밭 현장을 방문한 후 토론을 진행하였다.

도시농부들은 본 프로그램의 웹사이트를 통해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웹사이트에는 도시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며, 도시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단체의 웹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비디오로 제작해두기도 하였다. 기존 텃밭 경작자 단체들은 자신들의 텃밭 현황을 정리해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캔자스 주 전체의 공동체텃밭 현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 웹사이트를 통하여 보조금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다.

민관협력사업은 다른 주 보다 상대적으로 뒤진 캔자스 주 도시농업 활동을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캔자스 주 공동체텃밭 보조금 사업은 다른 도시나 단체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1) Evelyn S. Neier and Cheryl R. Boyer, "A Unique Grant Program for New Community Gardens in Kansas," Community Greening Review, Vol.19, 2014, p.9.

3. 미국 주요 도시의 도시농업 사례

3.1. 뉴욕

3.1.1. 그린 섬(Green Thumb)

뉴욕의 도시텃밭사업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어떻게 시민사회단체의 사회적 활동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텃밭의 조성으로 이어지는지를 알게 된다. 뉴욕의 그린 섬(Green Thumb) 프로그램은 시민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도시텃밭을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유형의 전형적인 예이다.

뉴욕시의 그린 섬은 1970년대 방치된 도시와 마을을 회복하기 위한 시민운동인 그린 게릴라(Green Guerrilla)의 거버넌스 중간지원조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린 게릴라 활동가들은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뉴욕시에 그린 섬이라는 민관 파트너십의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였다.

그린 섬 프로그램은 기존의 도시텃밭 경작자들이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던 텃밭 경작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시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린 섬 프로그램은 기존 도시텃밭에 창고를 제공하거나 기술 지원을 하거나 농업교육 워크숍을 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준다. 그린 섬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지역사회개발기금을 사용해서 도시텃밭에 재정지원을 한다.

그린 섬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시영 도시텃밭사업이다. 원래 이 사업은 뉴욕시 총무국 관할이었다가 1995년 공원여가국으로 이관되었다. 그린 섬은 미국 내 최대 도시텃밭 프로그램으로 600개소의 텃밭에 약 2만 명의 경작자가 참여하고 있다. 각 도시텃밭은 해당텃밭 이용자조직의 대표자가 시에서 주관하는 도시농업 워크숍에 참여해야만 예산이나 농자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뉴욕시 당국은 도시텃밭 이용자조직에게 각종 행정 편의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청소국에 연락하여 텃밭 조성이 계획되어 있는 곳의 쓰레기를 치우게 한다든지, 텃밭 경작자에게 소화전의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린 섬은 뉴욕시의 다양한 공동체텃밭과 녹화정책들을 현장에 전달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노력과 제안을 행정부서에 전달하고 이를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뉴욕시의 모든 공한지(空閑地)에 대한 목록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해당부처와 협의하여 공동체텃밭 부지로 확보하는 것을 돕는다. 이후 공동체텃밭을 위한 재료지원과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하며, 특히 커뮤니티 리더십

을 확보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무실은 뉴욕시청과는 별개의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11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뉴욕 도심부에 있는 그린 섬 운영 공동체텃밭은 우선 뉴욕시 맨해튼에 있는 정원(Generation X garden)은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정원으로 주로 청년들의 음악, 미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소음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으로 활동이 중단되고 있으나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운영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맨해튼에 있는 정원(Liz Christy Garden)은 뉴욕에서 가장 오래된 공동체텃밭으로 그린 게릴라 운동의 효시가 된 정원이다. 회원들은 주3회 이상 정원을 개방하고 관리하고 있다. 아름다운 정원과 작은 텃밭, 퇴비장, 쉼터 등이 인상적이며 공동체 행사도 개최한다.

3.1.2. 옥상농장

뉴욕시 브루클린 그레인지(Brooklyn Grange)가 운영하는 옥상농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텃밭이다. 현재 뉴욕시내에 옥상농장이 2개 있으며 전체면적이 1만 ㎡의 면적으로 연간 23톤의 유기농채소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30개에 달하는 벌통을 가지고 있어 뉴욕에서 가장 큰 양봉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폐쇄된 이전 해군기지에는 브루클린 그레인지가 운영하는 농장(Brooklyn Navy Yard Farm)이 있다. 면적이 6,000㎡에 이르는 이 텃밭은 12층 건물의 옥상에 있다.

브루클린 그레인지 옥상농장의 창립자(Ben Flanner)는 뉴욕 최초의 옥상농장인 이글 스트리트 옥상농장(Eagle Street Rooftop Farm)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하다. 벤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도시농업을 수준 높은 도시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옥상농장의 조성은 뉴욕시 공중보건국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조성하였으며 운영은 자립적으로 하고 있다.

옥상농장에서 생산된 수확물은 크게 3가지 경로로 판매된다. 레스토랑이나 카페에 직판하거나 공동체지원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CSA) 회원을 상대로 판매하거나 농민시장을 통해 판매한다. CSA 회원은 약 60명 정도이며, 매월 50달러의 회비를 내고 매주 방문하여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받거나 직접 수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간 2,000명의 어린이들에게 농사체험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3.2. 시애틀

정책측면에서 시애틀 도시농업은 미국에서 가장 앞서 있다. 1970년 워싱턴 대학교

여대생(Darlyn Rundberg Del Boca)은 어린이 교육용 텃밭을 제안했으며, 이탈리아 이민자인 농부(Rainie Picardo)가 자신의 농장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시애틀의 공동체텃밭 역사가 시작되었다. 시애틀 시는 1973년 이 토지를 매입하여 공식적인 공동체텃밭을 운영했다. 시애틀 시는 피카르도의 이름을 따서 공동체텃밭을 피 패치(P-Patch)라고 부른다.

2013년 5월 현재 시애틀 시에는 85개 공동체텃밭이 있는데 구획은 2,750개이며 경작자는 6,300명이다. 시애틀 시에서는 공동체텃밭을 마을공동체국이 관리하고 있다. 다른 여러 도시와 마찬가지로 시애틀 시에서도 텃밭 대기자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시애틀 시가 텃밭구획규모 축소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2012년 12월 현재 1,000여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최소 3개월, 최대 4년을 대기해야 한다. 시애틀 시에서 가장 오래된 공동체텃밭은 1973년에 개설된 피카르도(Picardo)공동체텃밭[2]이며 최대 공동체텃밭은 시슬(Thistl)공동체텃밭으로 그 면적이 1만 2,000㎡이다.

시애틀 시는 2008년 신설된 공원 녹지세 중 일부인 2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22개 공동체텃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확충하고 있다. 시애틀 시 공동체텃밭의 이용료는 면적 9㎡는 38달러, 면적 18㎡는 50달러, 면적 37㎡는 74달러로 지정되어 있다. 저소득계층은 사용료 할인이 가능하다. 이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로, 연간 사용료와 별도로 1인당 연간 8시간의 자원봉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2010년 현재, 경작자 중 70%가 저소득계층, 27%가 유색인종, 46%가 공동주택 거주자이다. 경작자의 73%가 현 거주지에 경작 공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300명의 공동체텃밭 경작자가 연간 2만 8,00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정규직 직원 13.5인의 업무시간에 해당한다.

시애틀 도시농업은 시가 행정지원을 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는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피 패치 트러스트(P-Patch Trust), 솔리드 그라운드(Solid Ground)의 레티스 링크(Lettuce Link), 시애틀 실스(Seattle Tilth) 등 다양한 도시농업 추진단체가 시와 파트너십으로 공동체텃밭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애틀 공동체텃밭의 중심적인 가치는 저소득 계층이나 소수집단 지원에 있다. 예를 들면 2012년에는 9개 나라 출신 23명의 경작자가 협업을 통하여 수확물을 농장 판매대나 노인센터에 유상 공급하거나 공동체지원농업을 통해 판매했다. 대부분의 공동체텃밭 안에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기부 텃밭이 있으며 수확물은 푸드뱅크 등에 기

2) 10,000㎡, 302구획.

부하고 있다. 경작자의 40%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수확물을 기부하고 있는데 2012년에는 경작자들이 약 12톤의 수확물을 기부했다.

3.3. 시카고

3.3.1. 더 플랜트(The Plant)

더 플랜트(The Plant)는 시카고 남서부 산업지역에 있는, 폐기된 육가공공장 건물[3]을 리모델링하여 공장형 도시농업 공간인, 일종의 식물공장으로 만든 곳이다. 더 플랜트의 창립자(John Edel)는 회사(Bubbly Dynamics)를 설립하여 시카고의 저평가된 산업건물을 재생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더 플랜트는 먹거리생산과 먹거리가공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원 재활용과 에너지 자립을 연계한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다. 더 플랜트는 경제적으로 쇠퇴한 산업지역의 재생을 위하여 12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 플랜트는 일리노이주 경제진흥기금을 지원받아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시설을 조성하고 있으며, 연간 1만 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에너지와 열은 모두 더 플랜트의 유지관리에 사용할 계획이다.

더 플랜트는 조금씩 공간을 채워가고 있으며, 현재 아쿠아포닉[4]과 버섯재배 등이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빵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이 입주해있으며, 실외 공간에서는 채소를 재배하고 있다.

더 플랜트는 다양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더 플랜트 스스로 사회적기업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과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개발하고, 에너지 자립시스템과 아쿠아포닉 시스템(Aquaponics System)[5] 등을 발전시켜가고 있다.

3.3.2. 그로잉 파워(Growing Power)

그로잉 파워(Growing Power)는 유명한 농구선수(Will Allen)가 1993년 설립한 사회적 기업으로 먹거리 재배와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로잉 파워는 밀워키에 본사가 있으며 시카고에는 지사가 있다. 그로잉 파워는 시카고에서 총 6개의 농장 및

3) 연면적 8,686㎡.
4) 수경재배와 민물고기 양식이 결합된 방식임.
5) 물을 뜻하는 Aqua 와 수경재배를 뜻하는 Hydroponics의 합성어임. 어항의 물고기 분뇨를 질소화시켜 상단에 있는 화분에 공급하고, 상단의 화분에서는 산소를(물을 통해) 어항으로 공급시켜주는 시스템임. 최소한의 에너지원은 태양광을 활용할 수 있으며, 외부의 도움을 조금씩 받는다면 꾸준히 활용할 수 있는 도시농업모델이면서 확장했을 경우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논양어의 모델이기도 함.

공동체텃밭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인 그로잉 파워는 건강에 좋고 안전하며 값싼 먹거리에 공평하게 접근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기관이자 토지 트러스트이다. 현장중심 교육훈련, 시범사업, 공동체 먹거리 시스템에 기초한 농업기술지도 등을 통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공동체 먹거리 시스템은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가공하고 판매하며 유통하는 것을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그로잉 파워의 시카고 사무소는 공동체 먹거리 센터와 시카고의 도시농업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원 개발 및 기술 지원하기 위해 2002년 2월에 공식적으로 개소하였다. 그로잉 파워는 현재 시카고에서 총 4만 8,560㎡ 이상의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

그로잉 파워 시카고는 2013년에 300명 이상의 젊은이를 훈련하고 고용하였다. 이 중 시카고의 저소득계층 주거지역인 사우스 사이드 지역에 45명 이상의 젊은이가 아이언 스트리트 도시농장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수확한 농산물은 식당과 농부시장에 내다 판다. 그로잉 파워는 시카고 시와 협력하여 먹거리 보장이 안 되는 지역사회 5곳에 새로이 농민시장을 열었다.

그로잉 파워가 운영하는 농장 중 가장 큰 아이언 스트리트 농장은 버려진 공장 건물을 개조해서 도시농장으로 만든 곳이다. 그곳에는 토마토, 가지, 오크라를 비롯한 여러 채소가 7개 온실과 올림 베드에서 자라고 있다. 아이언 스트리트 도시농장은 자원봉사자에게 1주일 3번 개방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은 화요일, 목요일 오후 1시와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다. 그들은 퇴비를 옮기거나 지렁이를 관리하거나 다른 작물을 기르는 등의 일을 돕는다. 이 농장에서는 여러 개의 지렁이 퇴비 통이 있고, 옥상 양봉장에는 6개의 벌통이 있다. 7개의 온실, 양어수경 시스템, 퇴비화 및 지렁이 퇴비화 시설, 버섯재배[6] 시설 등이 있다. 또한 염소 사육도 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농부시장 형태의 판매대를 열어 찾아오는 주민에게 농산물을 판매한다. 농장을 견학하기 위해서는 1인당 10달러를 지급해야 하며,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1시와 토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1시에 농장 투어가 있다.

3.3.3. 그로잉 홈(Growing Home)

원래는 공한지였던 우드 스트리트 도시농장은 현재 2,700㎡의 텃밭으로 바뀌었다. 이곳에는 강의실, 사무실, 채소 가공처리시설 등이 있는 건물이 있다. 인근에 있는 호노레 스트리트(Honore Street)농장은 면적이 4,000㎡ 정도 된다. 2,000㎡의 외부공간이

6)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등임.

있는 이 도시농장에는 비닐하우스가 2개 있다.

그로잉 홈은 직업훈련, 유기 도시농업, 마을공동체 발전이라는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유기 도시농업을 통해 사람과 공동체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인 그로잉 홈은 직장이 없는 젊은이를 고용해서 농장을 관리하게 하고 채소를 기르게 하는 과정에서 괜찮은 정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그로잉 홈은 공동체지원농업, 농부시장, 도매시장, 레스토랑 등을 통해 유기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그로잉 홈은 1993년의 시드 오브 체인지(Seeds of Change)에서 출발한다. 1993년에 시카고 노숙자 연합(Chicago Coalition for the Homeless)의 정책국장(Les Brown)은 연방정부의 유휴지에 도시농업과 일자리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 시드 오브 체인지를 창립하게 되었다. 1996년 시드 오브 체인지는 그로잉 홈으로 비영리단체로서 전환하게 된다. 1998년에 그로잉 홈은 일리노이 라샐리 지역에 4만 ㎡ 규모의 농장[7]을 조성하게 되었다. 그로잉 홈은 초기부터 도시농업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노력해왔다. 그로잉 홈은 현재 시카고 시내 3곳과 일리노이 주 마르세이유시 등 4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로잉 홈은 새로운 공동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더욱 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2003년에 마을에서 활동하던 여러 단체들이 연합해서 결성한 팀워크 앵글우드(Teamwork Englewood)가 벌이던 활동의 일환이었다. 앵글우드 지역은 저소득계층 주거지역으로서 이곳에 그로잉 홈이 자리 잡은 것은 신선한 채소에 접근할 기회가 거의 없던 지역에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로잉 홈의 도시농장은 인턴이 관리한다. 인턴은 인근 앵글우드 마을 출신도 있지만 주로 시카고 전역에서 각종 직업소개 및 사회복지 기관을 통해 이곳에 온다. 그로잉 홈에서는 연간 40명의 인턴이 14주 동안 교육훈련을 받는다. 모든 인턴은 현장에서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작업을 한 후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수업을 받아야 한다. 그로잉 홈의 인턴은 농부가 되기 위해서 이곳에서 훈련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로잉 홈에서 농작업을 하면서 인턴들은 괜찮은 직장으로 옮기기 위한 기술과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 그로잉 홈의 직원 중에는 고용 관련 상근 전문가가 있어 전문적으로 고용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인턴은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컴퓨터 사용방법, 기타 법적인 지원을 받는다. 인턴들은 농사일을 배우면서 단순히 농업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

7) 현재 레스 브라운 기념농장으로 불림.

니라, 시간을 엄수하는 생활습관, 세밀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는 작업태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주어진 일을 하는 업무방법 등도 함께 체득하게 된다.

3.3.4. 윈디 시티 하베스트(Windy City Harvest)

윈디 시티 하베스트는 시카고 식물원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농업교육을 하고 작물을 생산하며 퇴비를 생산하며 수확물은 판매도 한다. 윈디 시티 하베스트의 로데오 농장은 견습생과 윈디 시티 하베스트 단원을 위한 교육훈련의 장 역할도 한다.

윈디 시티 하베스트 견습생 프로그램에서는 연간 15명에서 20명 정도의 학생을 받는다. 9개월 간[8] 지속가능한 도시농업에 대해 교실 수업과 현장 실습이 있고, 과정을 마치면 수료증을 교부한다. 이 프로그램은 윈디 시티 하베스트나 협력기관에서의 14주 유급 인턴십을 포함된다.

학생들은 추가적으로 14주의 저녁 강좌를 들을 수 있고 졸업생들에게는 윈디 시티 하베스트의 레전즈 농장(Legends Farm)에서 최대 2년간 인큐베이터 농민이 될 자격이 주어진다. 이 2가지 프로그램과 관련한 예산은 농무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2008년에 시작된 윈디 시티 하베스트는 성인 교육훈련과 농산물 생산 공간을 6곳으로 확대했다. 지난 7년간에 걸쳐 이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한 농업의 모범사례에 기반을 둔 교육훈련 커리큘럼과 농장관리 프로토콜을 개발했으며 학생들과 공동작업하는 데 있어 시카고 식물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했다. 지금까지 71명의 성인이 견습생 프로그램을 이수했으며 2014년에는 14명이 추가로 졸업한다. 134톤 이상의 농작물을 판매용으로 생산했다. 나아가 윈디 시티 하베스트 견습생 운영 프로그램 모델을 시카고, 일리노이주, 미국 전역에서 발표하고 홍보했다.

윈디 시티 하베스트 견습생 프로그램은 4개월 동안 1주일 4일, 하루 4시간 시카고 식물원이 관리하는 농장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일정이다. 1주일 동안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교실 수업과 현장 실습을 병행한다. 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끝나면 6월 초부터 9월까지 14주 동안 봉급을 받으며 인턴십을 보낸다. 견습생은 1주일 37.5시간을 일하며 1시간 당 9달러의 봉급을 받는다.

주요수업내용은 퇴비와 토양 생태학, 식물 번식, 노지 재배와 온실 재배, 수확 후 가공처리방법, 먹거리 안전, 농법 교육, 생산계획, 관개법, 병충해 방재, 잡초 관리, 농장 보고서 작성법, 작물 재배 계획, 농업경영방법 등이다. 유기농 채소 생산과 수확 후 식품 보관에 대한 워크숍을 한 달에 한번 토요일에 개최한다. 이 워크숍은 텃밭 경작자

8) 2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임.

에게, 주어진 경작공간에서 최대의 농산물을 얻어내는 방법을 교육한다. 이 워크숍은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으며 최대 15명의 수강생을 받는다.

3.4 캘리포니아

3.4.1. 새크라멘토 사우스 사이드 도시텃밭

새크라멘토 최초의 공식적인 도시텃밭인 사우스 사이드 도시텃밭은 2004년에 개장되었는데, 이 텃밭은 민관협력에 의해 조성되고 운영되고 있다. 이 텃밭의 조성에는 사우스 사이드 주민협의회, 새크라멘토시, 새크라멘토 지역 도시텃밭 연합, 캘리포니아주 총무국, 캐피털 개발청 등이 참여했다. 지역 발청이 2002년 소유 토지를 새크라멘토 시에 기증하면서 사우스 사이드 도시텃밭 조성이 가능해졌다.

사우스 사이드 도시텃밭의 관리 책임이 있는 새크라멘토 시 공원여가국은 2008년에 공원 내와 시유지에 도시텃밭을 더 많이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나아가 공원여가 시설에 로컬 푸드와 유기농산물 공급을 늘리고 공원 내에 시범농원을 조성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한 도시농업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3.4.2. 패서디나시 스룹(Throop) 교회 텃밭

전 세계에서 여러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가운데, 패서디너시에 있는 스룹 교회에서는 석유부족시대(peak oil)[9]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공동체의 전환운동이라는 관점에서 도시농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4월 23일, 패서디너시 스룹 교회 앞마당에 로스앤젤리스 동북부 전환운동 네트워크(NELA Transition)와 스룹 교회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텃밭을 만들기 위한 첫 작업을 시작하였다. 회복력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기술을 공유하는 공동체 공간을 만드는 협력 사업을 위한 양 단체의 합의 결과였다.

양 단체의 15명의 자원봉사자들은 델마가의 교회 남쪽 부지에 채소밭 구획을 만들었다. 텃밭에는 토마토, 호박, 콩, 고추를 심고, 해충 접근 방지를 위해 메리골드도 식재하였다. 2011년 여름 내내 넬라 텃밭 그룹은 정기적으로 모여 올림텃밭을 관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280㎡에 이르는 남쪽의 잔디밭 전체를 영구농업, 물을 적게 쓰는 농법, 도시 먹거리 숲의 모델이 되는 시범텃밭으로 개조해보자는 아이디어 등이 나왔다. 동 프로젝트는 패서디나 물과 전력 환급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 되었다.

9) 피크오일(peak oil): 전체 매장량의 절반을 써 버려 석유 생산이 줄어드는 시점.

이 텃밭은 6개 구역으로 나뉘어졌다. 제1구역에는 5그루의 과일나무, 제2구역에는 허브 정원 조성, 교회 건물 옆에 조성된 제3구역에는 채소가 주를 이룬 올림텃밭, 제4구역에는 캘리포니아 토종 식물을 이용한 조경작업, 제5구역에는 폐건축자재를 활용해 만든 공동체 공간과 그늘을 제공을 위한 올리브 나무 식재, 보도와 접하는 경사지인 제6구역에는 폐건축자재를 재활용하여 지반을 안정화시켰다. 넬라전환(NELA Transition)은 석유부족시대에 자원의 제약에 직면하여 회복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스룹 교회와 공동으로 추진한 상기 텃밭 프로젝트도 이러한 운동의 일환이다. 회복력 있는 공동체 만들기라는 목표는 잔디밭을 사람과 야생동물 모두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텃밭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통해서도 달성되지만, 이러한 텃밭을 통해 주민들이 서로를 화합하고 협력하여 마을공동체를 재정립한다는 것에 중요한 가치이다. 이 텃밭은 마을 주민들이 서로 알고지내며 지속가능한 작물재배법을 서로 가르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

4. 미국의 도시농업법제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도시농업법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시농업조례가 없다. 미국에서는 도시농업을 주로 도시계획조례로 관리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은 도시계획법제에서 도시농업을 가장 광범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이다.

사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도시계획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주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위임되어 있다. 미국 도시계획법제와 우리나라 도시계획법제가 달라서 미국의 사례를 바로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미국 도시계획법제에서 도시농업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

미국의 여러 도시는 도시농업 분야에 도시 계획적으로 접근하면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클리블랜드시는 2007년 미국 최초로 도시텃밭을 도시계획조례상 용도지역지구로 입법화하였다. 조례에 의해 도시텃밭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공동체텃밭이 허용되며, 허가를 받은 일부 텃밭의 경우 수확물의 판매도 허용된다. 미국 밀워키시는 2010년 3월, 조례를 개정하여 주거지역에서 양봉을 허용하였다. 한 필지당 벌통 2개까지 소유할 수 있다. 이하 <표 4>을 보면 미국 도시의 도시계획조례

에서 도시농업 관련 사항을 해당 도시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표 4>에서 보듯 미국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물관리조례에 양봉이나 양계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

표 4 미국 도시의 동물관리조례 중 가금류 및 가축 사육, 양봉 관련조항

도시	도시농업 관련 조항
미시건주 앤아버	• 우리 또는 벌통이 대지경계선에서 10피트(3m), 인근 주택에서 40피트(12m)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저밀도 주거지역에서 암탉 4마리와 벌통 2개 허용
아칸소주 로저스	• 단독주택지역에서 우리가 인근 주택에서 25피트(7.6m)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에 한하여 암탉 4마리 허용
콜로라도주 포트 콜린스	• 우리 또는 벌통이 대지경계선에서 15피트(4.5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물보호협회의 허가를 얻어 1필지 당 암탉 6마리 허용 • 부지면적이 1,000㎡ 이하일 경우 벌통 2개 허용 • 부지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 벌통 추가 가능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 인근주택에서 200피트(60m) 이상 떨어져 사육할 경우에 한하여 대형가축 2마리 허용 • 인근주택에서 암탉은 100피트(30m), 수탉은 300피트(90m) 이상 떨어져 사육할 경우에 한하여 암탉 15마리, 수탉 1마리 허용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 특정 조건하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 가금류 3마리와 가축 2마리 허용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 거리제한 및 시행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암탉, 수탉, 대형 가축 허용. • 우리가 암탉은 50피트(15m), 수탉은 100피트(30m), 대형가축은 100피트(30m) 이상 인근 주택에서 떨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육 허용. 예외적인 경우 별도의 허가 필요

자료: Kimberley Hodgson(2011).

5.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의 도시농업을 미국의 도시농업과 비교할 때 규모와 양적 측면에서만 보면 미국을 비롯한 도시농업 선진국 수준에 거의 도달해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도시농업 관련 법제 정비나 도시농업의 가치관 정립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미국의 도시농업이 공동체를 중시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도시농업은 그렇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동체텃밭이 확고한 공동체 정신에 기반을 두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농업처럼 식량체계라는 큰 체계 속에서 도시농업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텃밭의 공동체 정신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각 텃밭에 기부 텃밭 구획 설정, 자원봉사 의무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다문화 가정과 공동체텃밭의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푸드뱅크와 공동체텃밭의

연계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학교 텃밭이 마을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도 전개해야 한다. 도시농부학교 커리큘럼에서 공동체 정신과 식량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도시농업단체들을 중심으로 전통작물 종자 보전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나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런 활동들이 식물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는 식물원 등을 중심으로 씨앗도서관 운동과 같은 방식으로 전개되거나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는 씨앗 교환 운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가 2011년 11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래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도시농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도시농업의 제도화가 급속히 이루어졌다. 하지만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이제 논의를 막 시작한 단계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도시농업과 관련한 규정이 없으며 언급도 되어 있지 않다. 도시농업과 같은 새로운 현상을 수용하는 데 현재의 토지이용 규제방식이 적절한 것인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도시농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가는 것을 막고 경작지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도시농업이 제도적인 토지이용계획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공동주택단지의 텃밭공간을 주민공동시설로 지정하여 농업공간을 확보하거나 신규 도시개발 시 농업공간의 계획적 입지기준을 적용하여 도시농업공간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서 서울시에만 도입되어 있는 생태면적률 제도의 경우, 생태면적률 계산을 위한 공간유형에 도시농업공간을 추가해도 좋겠다. 현재 생태면적률 계산을 위한 공간 유형에는 자연지반 녹지, 수공간,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벽면녹화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경작공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앞으로 생태면적률 제도의 전국적 확산을 기대해본다.

단순히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계획조례 조문 1~2개를 고치거나 도시농업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도시농업이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시민이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삶의 질과 도시공간의 질을 높여갈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조례는 말할 것도 없고 농지법, 도시공원녹지법 등의 근본적인 개혁이 뒤따라야 우리나라 도시농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American Community Gardening Association. 2013. *Community Greening Review. Vol. 18.* American Community Gardening Association.

American Community Gardening Association. 2014. *Community Greening Review. Vol. 19.* American Community Gardening Association.

Hodgson, Kimberley, Marcia Caton Campbell, and Martin Bailkey. 2011. *Urban Agriculture: Growing Healthy, Sustainable Places,*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Lawson, Laura, Luke Drake. 2013. "Community Gardening Organization Survey 2011-2012", *Community Greening Review, Vol. 18.* American Community Gardening Association.

Neier, Evelyn S. and Cheryl R. Boyer. 2014. "A Unique Grant Program for New Community Gardens in Kansas," *Community Greening Review, Vol. 19.* American Community Gardening Association.